

# ‘피겨 퀸’ 판정논란 속 씩씩한 은퇴

## 2014 스포츠 10대뉴스

### 1 김연아 소치올림픽 빼앗긴 금

‘피겨 여왕’의 마지막 무대는 우아했지만, 씩씩했다. 김연아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홈 장을 뒀던 특유의 우아한 연기를 선보였다.

김연아의 마지막 인사는 늘 그랬듯 완벽했다. 한 차례의 실수도 없었다. 그러나 올림픽 2연패의 금자탑과 함께 김연아와 작별할 준비를 하던 팬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결과가 펼쳐졌다.

개최국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가 224.59점을 받아 김연아(219.11점)를 2위로 밀어내고 금메달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판정이었다. 많은 외신도 ‘스캔들’이라는 표현까지 곁들여 비판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도 국제연맹에 제소하는 등 항의의 움직임에 나섰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개최국의 뒷세에 밀려 피겨 역사상 최고의 스타가 마지막 무대를 씩씩하게 마쳤다는 인상이 강하게 남은 대회였다.

### 2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홍명보 사퇴

한국 축구 대표팀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서 조별리그 무승 탈락의 수모를 당했다.

준비 기간에 세 차례 감독이 바뀐 정도로 준비가 부족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최종예선을 앞두고 조광래 감독을 경질했고 최강희 후임 감독은 최종예선만 치르고서 본선행을 거절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이 본선을 1년 앞두고 대표팀을 떠났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1-1로 비긴 뒤 알제리와의 2차전에서 2-4로 완패했다. 벨기에와의 3차전에서는 상대의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안았으나 0-1로 패했다. 한국이 1무2패로 대회를 마감하자 홍 감독의 전술실패, 선수기용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홍 감독이 월드컵 준비 기간에 토지 매입에 열을 올렸다는 의혹까지 꼬리를 물었고 조별리그 탈락 직후에 선수들과 현지 술집에서 유희한 사실이 드러나자 결국 자진사퇴했다. 협회는 독일 축구의 기대주 육성 시스템을 지원하고 코르티부아르를 맡았던 올리 슈틸리케(독일) 감독을 새 시련으로 영입했다.

### 3 프로야구 삼성 통합우승 4연패

삼성 라이온즈가 한국 프로야구 사상 첫 4년 연속 정규시즌·한국시리즈 통합우승을 차지하며 ‘라이온

즈 전성시대’를 이어갔다. 삼성은 10월 15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LG와 홈경기에서 5-3으로 승리하며 정규시즌 1경기를 남기고 우승을 확정했다. 11월 추운 날씨에 펼친 한국시리즈에서는 넥센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고 4승 2패로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한국시리즈 4년 연속 우승은 해태 타이거즈(KIA 전신)가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수립한 최다 연속 우승 기록과 타이다. 하지만 당시 해태는 1988년만 정규시즌 승률 1위를 차지했을 뿐, 다른 3시즌에서는 승률 2위를 기록했다. 통합 4연패는 삼성만이 달성한 대기록이다.

### 4 이상화, 빙속 500m 올림픽 2연패

‘빙속 여제’ 이상화(25·서울시청)가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2연패를 이루며 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스피드스케이팅 선수의 반열에 올랐다.

이상화는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결승에서 1-2차 레이스 합계 74초70의 기록으로 우승,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이어 2연패를 차지했다.

아시아 선수가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은 남녀 전 종목을 통틀어 이상화가 처음이다. 이상화는 특히 2차 레이스(37초28)와 합계 기록(74초70)에서 모두 올림픽 신기록을 작성하는 등 완벽한 레이스를 펼쳤다. 그는 소치올림픽을 앞둔 1년 사이에 네 차례나 여자 500m 세계 신기록을 작성, 이전까지 36초94에 머물던 세계 기록을 36초36까지 끌어내며 금메달을 예고했다.

이상화는 올림픽을 마친 후에도 새 시즌 월드컵에서 연속 금메달 행진을 벌이는 등 ‘빙속 여제’다운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 5 ‘신교선수 신화’ 서건창 200안타

한국프로야구 33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 시즌 200안타 고지에 오른 서건창(25·넥센 히어로즈)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 1994년에 세운 196안타가 한국프로야구의 기록이었다. 2년 전 작성된 이 거대한 기록을 서건창이 넘어섰다. 이종범과 자신의 고향인 광주에서 197안타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 서건창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안타 2개를 추가해 201안타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만들어냈다.

프로 지명을 받지 못한 그는 2008년 LG 트윈스의 신교선수로 들어갔지만, 단 한 번 타석에서 서서 심정을 당한 것이 1군 경력 전부였다. 일반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뒤 다시 신교 선수로 복선에 임당한 서건창은 지독한 열정으로 2012년 신인상을 받았고, 올 시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다. 정규리그 MVP에 선정된 서건창은 길고 길었던 무명 시절을 한풀이하듯 연말 각종 시상식상을 싹쓸이했다.

### 6 인천 아시안게임 北 선수단 참가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은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천의 가을을 장식했다. 한국에서 아시안게임이 펼쳐진 것은 1986년 서울, 2002년 부산 대회에 이어 세 번째였다. 한국은 금 79개, 은 71개, 동 84개로 종합 2위로 대회를 마치고 5회 연속 종합 2위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야구는 2회 연속 금메달을 땀과 농구는 사상 첫 남녀 동반 제패라는 성과를 냈다. 남자 축구는 연장 후반 종료 직전에 터진 결승골로 북한을 꺾고 23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여자 배구, 여자 핸드볼, 여자 하키에서도 금메달 소식이 전해지는 등 구기종목의 선전이 이어졌다.

북한도 선수단을 파견해 분위기를 띄웠다. 북한은 역대에서 금메달 4개를 쟀고 여자축구 금메달 등을 더해 금 11개, 은 11개, 동 14개로 종합 7위에 올라 12년 만에 종합순위 ‘톱 10’에 복귀했다. 그러나 인천 대회는 조직위원회의 미숙한 운영으로 논란을 빚었다.

### 7 부활 ‘빅토르 안’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는 러시아 국기를 달고 나선 ‘쇼트트랙 황제’ 빅토르 안(29·한국명 안현수)의 일거수일투족이 큰 관심을 끌었다.

그는 2006 토리노 올림픽 3관왕에 오르는 등 한국의 간판스타로 활약했지만 2009년 무릎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고, 이후 소속팀마저 해체되면서 은퇴 위기에 놓이자 2011년 러시아로 귀화했다.

새로운 조국에서 열린 올림픽을 통해 그는 화려하게 부활했다. 1500m 동메달로 러시아에 사상 첫 쇼트트랙 메달을 안겼고, 1000m에서는 8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500m와 5000m 계주까지 3관왕에 올라 역대 올림픽 쇼트트랙 최다 메달 기록(8개)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 8 류현진 2년 연속 14승...추신수 부진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2년 연속 메이저리거라는 정점에서 맹위를 떨쳤다. 빅리그 신인이었던 지난해 14승 8패, 평균자책점 3.00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류현진은 올해도 14승 7패에 평균자책점 3.38을 찍으며 다저스의 제3선발로 우뚝 섰다. 포스트시즌에서도 60이닝 1자책점으로 제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부상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등판 횟수가 지난해 30경기에서 26경기로 줄면서 지난해 192이닝 보다 40이닝이 줄어든 152이닝을 소화하는데 그쳤다.

1년 전 이맘때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 1억3000만 달러(약 1433억원)라는 ‘잭팟’을 터트렸던 추신수(32)는 시즌 내내 왼쪽 팔꿈치 통증과 왼쪽 발목 부상에 시달렸고 들쭉날쭉한 스트라이크존에 선구안까지 흔들리며 타율 0.242, 출루율 0.340, 홈런 13개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 9 ‘아시아 축구 아이คอน’ 박지성 은퇴

‘아시아 축구의 아이콘’ 박지성(33)이 올해 5월 14일 무릎 부상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은퇴를 선언했다. 성실성 하나로 세계 정상급 선수로 도약한 박지성은 한국 축구의 자랑이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에서 보여준 그의 활약상은 ‘변방’에 머물러 있던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을 한껏 높였다.

박지성은 2002 한·일 월드컵에서 스타 반열에 오른 뒤 히딩크 감독의 부름을 받아 에이트호번에 입단했다. 2005년에는 세계적인 명문 클럽 맨유 유니폼을 입으며 한국인 1호 프리미어리거가 됐다. 맨유에서 박지성은 7시즌 간 총 205경기를 뛰면서 27골을 넣었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한국선수 첫 득점, 한국인 첫 프리미어리그 진출, 아시아 선수 첫 프리미어리그 우승, 아시아 선수 첫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박지성이 유럽 무대에 남긴 깊은 발자취다.

### 10 골프 김효주 돌풍...신인 맹활약

김효주(19·롯데)는 2014년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상금왕, 다승왕, 최저평균타수상(70.26타), 대상 등 4개 타이틀을 독식하며 새 역사를 썼다. 특히 상금 부문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김효주가 거둬들인 상금은 총 12억898만원. 2008년 신지애가 세운 단일 시즌 최다 상금(7억6500만원)을 뛰어넘었다.

지난 시즌 참가한 23개 대회 중 3개 메이저 대회 포함 5개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다승왕도 차지했다. 김효주의 기세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예비망 챔피언십 우승까지 이어졌다. 김효주와 동갑내기인 선수들의 활약도 올해 KLPGA 투어의 큰 활력소였다. 마지막까지 계속된 백규정(19·CJ오쇼핑), 고진영(19·넥스), 김민선(19·CJ오쇼핑)의 신인왕 경쟁은 KLPGA 투어의 큰 흥행요소였다. 신인왕은 올 시즌 3승을 올린 백규정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



김연아



박지성

# ‘캡틴 박’ 은퇴... 제2 축구인생 시작